

光州日釈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음력 10월 1일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27호 1판 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왕조 재건' 감독·단장 선임에 달렸다

벌써 달아오른 스토브리그 밑바닥부터 쇄신 변화 바람 양현종과의 채널도 유지

KIA 타이거즈의 '왕조재건'이 성공할 수 있을까. KIA는 창단 첫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이 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 됐다.

1년을 남겨뒀던 타이거즈의 '첫 외국인 사령탑' 맷 윌리엄스 감독이 계약해지로 3일 귀국길에 올 랐고, 이화원 대표와 조계현 단장도 동반 퇴진하 면서 구단 핵심 3인방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전 례없는 인사를 단행한 점은 팬들로부터 긍정적 평 가를 받고 있다.

'쇄신'을 강조한 기아는 일단 대표 자리를 채우 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기아 광주총무안전실장, 노무지원사업부장 등 을 역임한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본부 장이 내정자로 바쁜 행보를 했다.

직접 광주를 찾은 최 대표는 2일부터 4일까지 야구단을 세밀하게 들여다 봤다.

윌리엄스 전 감독과도 직접 자리를 가졌고, 부서 별 업무 보고도 받았다. 팀장급은 물론 일반 직원들 모두 팀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공장에서 총무 안전실장을 지내면서 광 주가 익숙하다. 야구장도 자주 찾았다. 큰 틀에서 야구단과 야구를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4일 서울로 복귀한 최 대표는 관심을 가지고 야구단 쇄신과 타 이거즈 왕조재건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를 강조하면서 궁금한 부분 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겠다 는 방침도 언급했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 이다. 어느 한 부문도 소홀할 수 없는 부문이자 고 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과제다.

단장과 감독 선임이 KIA 스토브리그의 우선 과 제가 될 전망이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추스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더블미션'을 수행할 재 목을 고르는 일이다. 이미 3인방 체제의 실패를 경 험한 KIA로서 숙고가 깊어질수 밖에 없는 난제 다. KIA 출신들이 팬들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 만 구단은 아직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만 큼 무거운 현안이다.

하지만, 장고를 거듭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 수단 개편과 FA 영입 등도 현장 책임자가 선임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3인방 퇴진 후폭풍은 이미 선수단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마무리 캠프를 앞두고 서동욱, 정성훈 코치가 짐을 뺐다. 새로운 사령탑이 영입되면 코치진 변 화의 폭은 커질 전망이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는 이뤄지고 있다.

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양현종의 거취도 챙 겨야할 대표적 현안 가운데 하나다.

KIA는 일단 FA 시장에 나온 양현종과의 채널 도 유지하고 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내부를 들여다본 최 대표의 시 선에 따라서 KIA의 스토브리그의 방향과 변화의 속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변화의 바람 속에 KIA는 4일 함평-기아 챌린저 스필드에서 마무리캠프를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새로운 감독과 단장을 찾는 KIA 타이거즈가 새로운 대표를 앞세워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 은 지난 2017년 'V10'을 이룬 뒤 기뻐하는 선수들. 〈KIA 타이거즈 제공〉

Passion [열정], Vision [習],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일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되풀이되는 학대 입양아들의 슬픈 잔혹사 ▶6면

북스-'슬슬 거닐다' '지식의 백과사전' ▶14·15면

新 전남인 - '옛산골농장' 이승건 대표 ▶22면



4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광주미래식품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7일까지 열리는 이 번 전시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 식품업체에는 신규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미

래식품과 식품 트렌드를 소개하는 호남권 최대 식품전문 전시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1년 만에 열린다

초광역 협력 방안 논의 해묵은 현안 풀기 기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여하 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

시·도는 일단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군 공항 이전 과 시·도 행정통합,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 등 시·도간 해묵은 대표 현안을 풀어가는 시 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 의회에 앞서 별도 환담하고, 다음 달 초 광주·전남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광

상생발전 위원회를 열어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위원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이 집 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전남 시·군 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 구 간 달빛동맹, 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연계하 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조성 등 초광역 사업을 추 진 중이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 통령 주재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도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각 발굴한 공 약 과제를 비교하고, 공동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주시,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이 계약한 '광주·전 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진행과 후속 조 처에 대한 검토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장과 지사의 만남에 앞서 조만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논의 안건을 조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10월 구성 돼 상생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 시장과 김 지사 취임 후에는 2018년 8월, 2019년 11월, 지난 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1 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빛 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25건의 기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과 정부 정책 대 응 등을 위한 신규 과제 8건을 발굴•논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이냐 洪이냐…국민의힘 대선주자 오늘 확정

5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출과 함께 여야의 대 선 주자가 모두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가 점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선 경쟁 구도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 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 정당 후보를 중 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5% 내외의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 총력 전이 예고된 가운데 후보단일화 등을 매개로 대선 구도는 막판까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대선 링에 올라서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 당과 홍준표 의원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자신있다 는 입장과 함께 후보 선출에 따른 맞대응 선거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는 '홍준표 후보가 승리할 경우, 경선 흥행과 함께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누 가 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챙기는 행보를 강화한 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동산 개혁 등을 주도하며 정책 대결을 대선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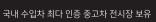
국민의힘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선 흥행에 고무 된 분위기다.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선 과정의 갈등도 결국 정권 교체의 열기에 녹아들 것 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후보 선출과 함 께 단일대오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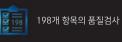




1년/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Mercedes-Benz